

📖 전례안내

	합동미사	
	3월 5일	3월 12일
해설	유소정	이혜진
독서	최성희	천영주
복사	권용재, 김대산	김영욱, 김준오
선창	성가대	성가대
반주	박승희	박승희
평일미사	805 회	
목주기도	53686 단	

🎵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 복음 환호송



길 이 요 진 리 요 생 명 이 신 그리스도 님 찬 미 받 으 소 서

🎵 본당 소식

1. 부활준비 판공 성사 안내

일시 : 3월 22일(수), 29일(수) 오후 5시 - 8시까지

장소 : 성당 내 고해소

매주 미사 전에 고해 성사가 있지만 편안하게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사순 기간 내에 상설 고해소 운영합니다.

2. 에파타 (성경 공부 모임) 피정

일시 : 3월 5일-6일 장소 : 예수회 피정 센터(팔마)

렉시오 디비나와 신/구약 통독 과정을 마무리하는 피정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바랍니다.

3. 사순 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십자가의 길" 있습니다.

4. "노래로 드리는 기도"안내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성당에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과 소리를 모아 정성껏 부르는 노래(성가)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가를 사랑하는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월 성가 (116 주 예수 바라보라, 120 수난의 예수, 121 한많은 슬픔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5. "온라인 아나바다" 개최 안내

취지 : 지속적인 재활용을 통한 자연보호 참여

방법 : '성당 여성회 아나바다' 채팅방을 통해 참여 가능. 관심있는 분들은 여성회 각 조장님한테 말씀해주시면 해당 채팅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사진과 구매시기 등의 간략한 내용을 올리시면 채팅방에서 아나바다 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여성회 위원들한테 문의해주세요.

6. 주일학교 소식

1) 오늘 3월 교사 회의가 있습니다. (Teacher's meeting - Today)

날짜(date): 3/5

시간(time): 8:30pm

장소(location): Zoom meeting

2) 주일학교 스케줄 (Sunday School schedule)

주일날자 (Date)	스케줄 (Schedule)	Lector2	Altar2
3/5/2023	교사회회		Dae San Kim
3/12/2023	십자가의 길		Juno Kim
3/19/2023	판공성사		Ayn Chung
3/26/2023			Subin Yoo

*주일학교 스케줄은 <https://sites.google.com/site/clesakkccss/> 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수 있습니다. (The link to Sunday School schedule)

교리 상식 - '주님의 기도' 때 손동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귄, 섬김, 나눔의 공동체 ✦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사전례총지침'은 사제나 공동 집전자가 주님의 기도 중 팔을 벌려 기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는 것은 하느님께 간절히 외치는 인간의 원초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은 두 팔을 벌림으로써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고, 하느님을 향해 몸을 높이 세우게 됩니다.

나아가 활짝 펼친 두 팔은 마치 날개의 모습이 되어,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타고 하느님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도록 희망하게 해줍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린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두 팔을 펼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사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동안, 교우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초대교회 때에는 사제뿐만 아니라 교우들도 기도를 바칠 때 팔을 벌리는 자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이를 지금도 신자들이 전례 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사전례총지침'은 이 주님의 기도 중 팔을 벌려 기도하도록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대상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뿐입니다. 교우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 사항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 관례적으로 많은 본당에서 '주님의 기도' 중 기도손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은 본당 사목자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주님의 기도' 중 교우들끼리 손을 잡도록 안내하는 미사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위해 한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하는 점을 반영한 전례적 실천일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 년에 발표된 주교회의 지침을 전달해드립니다.

“전례적으로 주님의 기도 때에 손을 잡는 것이 권장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서적인 문제나 위생적인 문제로 손을 잡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일선 사목자들이 친교를 이유로 미사 때마다 손을 잡기를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주교회의 2015년 춘계 정기총회)

교육선교위원회

지난주의 정성환

[주일 헌금]	
교중미사(2/12)	\$ 814.-
캔톤미사(2/18)	\$ 270.-
특별헌금	\$ 650.-
[교 무 금]	\$ 1,390.-
총계	\$ 3,124.-

(가해) 사순 제2주일
(2023년 3월 5일)

미사		성직자			교리 및 모임		
평일	목 (19:30)	주임 신부	정성훈 모세	93moses@gmail.com Cell: 216-801-0747	제대회 기도회	10:30	수요일
	교사회 기도회				19:00	수요일	
주일	10:00 (합동)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남성 기도회	18:00	화요일
	19:30 셋째 토요일				캔톤 기도회	20:30	수요일
캔톤	19:30 셋째 토요일	종신 부제	신철야 안드레아	cjshinmd@gmail.com Cell: 440-823-3797	에파타 모임	10:30	금요일
					주일학교	11:30	주일

클리블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주보위원	이승엽 유스티노	seungyup.lee.seungyup@gmail.com	216-308-3870
------	----------	---------------------------------	--------------

본당 주소 : 2310 West 14th Street, Cleveland, OH 44113

☎ : 216-861-4630 홈페이지 : www.clekcc.org 이메일: office@clekcc.org